

‘파친코’ 배경 일제강점기에 쏠린 세계의 눈



미 언론들 “일본이 한국문화 말살” 일본계 배우 “학교선 배우지 못해”

뉴욕타임즈 등 “최고의 시리즈” 극찬 불구 일본 주요 매체들 ‘파친코’ 언급조차 피해 극우 커뮤니티선 “역사 날조 반일 드라마”

4대에 걸친 ‘자이치’(在日·재일 한국인)의 수난사를 그린 애플TV+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가 세계적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인 일제강점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 누리꾼과 매체들이 잇달아 조선과 민중에 피식민의 고통을 안긴 일본의 악행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누리꾼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세계인이 알아야 할 이야기”

드라마 ‘파친코’는 재미동포 1.5세인 이민진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애플TV+ 관계자들은 2017년 출간돼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르는 등 호평을 받은 소설에 흥미를 느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아직은 낯선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막대한 제작비의 시대극화하는 데 주저했다.

‘파친코’의 총괄 제작자인 미국계 한국인 수 휴 프로듀서는 이들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수 휴 프로듀서에게 한국과 한국인들이 겪어온 고난의 역사를 자세히 들은 애플TV+ 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반드시 통할 이야기”라 확신했고, 마침내 드라마를 완성했다.

외신들은 선택이 옳았음을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롤링스톤, 영국 BBC 등 유력 매체들은 “올해 최고의 시리즈”라고 ‘파친코’를 찬사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스위크는 “미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이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라며 “일본은 한국문화를 말살하려 했다”는 등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파친코’ 출연진도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재일교포 솔로몬(진하)의 미국인 상사 톱 역을 맡은 지미 심슨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탄압과 학대를 받았는지 몰랐다. 학교에서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드라마를 통해 한국인이 겪은 고통에 공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솔로몬의 라이벌 나오미 역의 일본계 뉴질랜드 배우 안나 사웨이는 시네마테일리US 인터뷰에서 “일본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이야기”라며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 일본 일부 누리꾼 “역사 날조”

제작진은 ‘파친코’가 감정적 호소에 기댄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40여 명의 역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꼼꼼한 검증을 받았다. 자문에 참여한 역사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은 “사소한 소품부터 극중 등장하는 ‘어부가’의 박자까지도 고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누리꾼은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파친코’가 “역사를 날조한 반일 드라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애플TV+의 공식 SNS에 몰려가 ‘파친코’ 제작을 댓글로 비난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데이터베이스인 IMDb에서는 ‘파친코’에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평점 테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글로벌 OTT를 통해 일본의 가해 역사가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파친코’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본의 영화전문 사이트인 에이가닷컴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역사는 젊은 세대에게는 잊혀지고 있는 과거”라며 ‘파친코’는 “재일한국인의 가족사를 장대한 스케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호평해 눈길을 끌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17일 서울마라톤 겸 동아마라톤…한국 최고기록을 깨라!

오주한, 슬럼프 딛고 ‘전설 이봉주’ 넘을까

(2시간07분20초)

케냐 국적 최고기록 ‘2시간05분13초’ 오창석 감독 별세에 부진…부활 기대 올림픽 국제 심종섭 2시간9분대 목표 여자부 김도연-최경선 최고기록 대결



“한국마라톤 남녀 최고기록을 깨라!” 17일 열릴 2022 서울마라톤 겸 제92회 동아마라톤(명화문-잠실종합운동장에서 남녀 한국기록 경신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국제초청선수 28명(남자 19·여자 9명), 국내선수 99명(남자 75·여자 24명) 등 엘리트선수만 참가한다. 한국기록을 경신하면 주최사인 동아일보가 남자는 1억 원, 여자는 5000만 원의 타임 보너스를 지급하며 대한육상연맹도 2000만 원을 포상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마라토너들이 17일 열리는 2022 서울마라톤 겸 제92회 동아마라톤에서 한국 최고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남자마라톤 한국기록인 2시간7분20초를 넘을 대표주자는 오주한(청양군청·2시간5분13초·왼쪽) 심종섭(한국전력·2시간11분24초·가운데)이다. 여자마라톤 한국기록 보유자인 김도연(삼성전자·2시간25분41초·오른쪽)은 자신의 기록경신에 도전한다.



● 심종섭 2시간9분대 목표

남자마라톤 한국기록은 2시간07분20초. 이봉주(52·은화)가 2000년 2월 도쿄마라톤에서 수립했다.

이봉주의 기록을 넘어설 기대주는 오주한(34·청양군청)이다. 개인최고기록은 2016년 케냐 국적 시절 서울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05분13초다. 오주한은 2018년 귀화해 이번 대회에서 국내최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아버지처럼 파란 오창석 감독(백석대 교수)이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후 슬럼프에 빠져있다.

2016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였던 심종섭(31·한국전력)은 2시간9분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최고기록은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세운 2시간

11분24초다. 한국전력 김재룡 감독은 “심종섭이 2시간9분대 진입을 위해 훈련을 충실히 했다”고 밝혔다.

복병으로는 전재원(22·건국대·2시간13분51초), 신현수(31·한국전력·2시간14분04초), 김세종(21·삼성전자·2시간14분47초) 등이 있다.

● 여자부 김도연-최경선에 큰 기대

여자부에선 김도연(29·삼성전자)과 최경선(30·총북 제천시청)이 한국기록 경신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연은 2018년 서울마라톤에서 2시간25분41초로 폴인하며 21년 만에 권은주의 한국기록(2시간26분12초·1997년 춘천마라톤)을 31초 앞당겼다. 9월 2022한겨레아시아게임을 앞두고

지난겨울 제주도 등지에서 강도 높은 동계훈련을 했다. 지난달 30일 여수에서 열린 실업단체육상대회 여자부 1만m 트랙에서 33분24초의 대회기록을 수립했고, 앞서 제주도 한림에서 열린 실업단체항 10km 도로경기에서도 33분41초의 좋은 기록을 냈다. 전문가들은 여자선수가 1만m 트랙이나 10km 도로를 33분대에 주파하면 마라톤 풀코스(42.195km)에선 2시간25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김용복 감독은 “대회 당일 날씨가 덥지만 않으면 자신의 한국기록을 4년 만에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경선은 한국여자마라톤의 간판스타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2시간37분49초로 3위를 차지했다.

● 2022서울마라톤 출전 국내 엘리트 기록

Table with 3 columns: 이름, 소속, 개인최고기록. Rows include O Ju-han, Shim Jong-seob, Park Min-ho, Jeon Jae-won, Shin Hyun-soo for men and Kim Do-yeon, Choi Kyung-seon, Lee Suk-jeong for women.

2019년 4월 대구국제마라톤에선 2시간29분06초로 국내부 1위(국제부 3위)를 차지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Sponsor logos including 서울특별시,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체육회, 협찬: adidas, KB금융그룹, samyang, SOLESTAR, amino, KFA, 한국마사회, 주석회사, 오투기, 협력: GC녹십자, 주관: SPO-EX.COM

PO서 ‘미친 존재감’ 이정현, 신인상 아쉬움 날렸다

2G 평균 11점…필드골 성공률 57% 4강진출 1승 남은 오리온의 ‘복덩이’



정규리그 5위 고양 오리온은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에서 4위 울산 현대모비스에 2연승을 거둬 4강 PO(5전3승제) 진출에 1승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라운 토마스, 이우석의 잇따른 부상 결정으로 정상 전력은 아니었지만 오리온



은 적지에서 2경기를 모두 잡아내는 힘을 과시했다. 이 같은 결과를 얻은 데는 신인 이정현(23·187cm)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 이정현은 9월 1차전에서 18분여만 뛰고도 3점슛 4개를 포함해 15점을 올렸다. 3쿼터까지 뒤지던 오리온이 4쿼터 승부를 뒤집는 데 이정현의 활약이 컸다. 승부처에서 득점에 가세했을 뿐 아니라 강력한 대인방어로 상대의 실책

을 유도하는 등 만점 활약을 펼쳤다. 11월 2차전에서도 공수에 걸쳐 공헌도를 높이며 팀의 2연승을 거들었다. 그의 타이틀한 수비에 현대모비스 가드 서명진은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정현은 6강 PO 2경기에서 평균 11.0점·1.5리바운드·2.0어시스트·1.5스틸을 기록 중이다. 필드골 성공률이 57.1%에 달할 정도로 적중률 높은 공격력을 뽐내고 있다. 이대성을 필두로 이정현과 한호빈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데 힘입어 오리온은 현대모비스와 가드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시리즈를 유리하게 끌

어가고 있다.

대학 최고의 가드로 많은 기대 속에 프로에 데뷔한 이정현이지만 정규리그에선 팀 내 좋은 가드들이 많아 출전시간이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프로무대 적응에도 시간이 다소 필요했다. 올 시즌 52경기에 출전해 평균 9.7점·2.3리바운드·2.7어시스트로 쓸쓸한 개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신인상을 받진 못했다. 경쟁자들보다 임팩트가 떨어졌던 탓인지 득표수가 적었다.

대학시절부터 남자농구대표팀에 선발되는 등 큰 무대를 많이 뛰어본 덕분에 정규리그보다 긴장도가 높은 PO 무대에서 신인상을 놓친 아쉬움을 털어내며 비상하고 있는 이정현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한·일 축구 ‘6월 브라질전 공동추진’…월드컵 협업 프로젝트

성사뎀 남미예선 마친 후 양국 방문 개런티만 37억원…반반 부담 유력 남미·북중미국가 평가전도 타진 중

한국과 일본의 2022카타르월드컵 공동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오랜 라이벌이지만, 항상 각만 세우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동반자로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곤 한다. 대표적 사례가 평가전 추진이다. 비행기로 1~2시간 내의 지리적 요인이 긍정적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시리즈를 준비할 때면 대한축구협회(KFA)와 일본축구협회(JFA)는 종종 과감한 협업으로 스팅 파트너를 확보하곤 했다. 양측은 러시아월드컵 직후인 2018년 9월 코스타리카, 10월 우루과이 및 파나마, 2019년 3월 볼리비아 및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각기 일정을 달리해 소화한 바 있다. 카타르월드컵 본선을 앞둔 올해도 다르지 않다. FIFA는 월드컵 개막에 앞서 6월(4경기)과 9월(2경기)을 A매치 주간으로 정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6월 중 ‘삼바군단’ 브라질을 초청할 계획이다. 이미 브라

질축구협회와 교감이 한창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브라질대표팀은 호주에서 아르헨티나와 월드컵 남미예선 잔여 경기를 마친 뒤 한·일 양국을 방문한다. 일본의 경우 6월 10일 도쿄국립경기장에서 브라질과 2022 기린 챌린지컵 2차전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감독도 “브라질과 평가전을 위해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브라질대표팀을 위한 개런티는 300만 달러(약 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항공료(비즈

니스클래스)와 숙박비(5성급 호텔)도 추가된다. 이를 KFA와 JFA가 부담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게 축구계의 전언이다.

KFA의 형편도 좋지 않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급감한 JFA는 사육 매각을 검토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3년간 누적적자가 80억 엔(약 286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KFA와 JFA는 브라질 외에도 여러 팀들과 접촉하고 있다. 네이션스리그를 치를 유럽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미 및 북중미국가들의 초청 평가전을 추진 중이다. 이 또한 한·일 양국에서 패키지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